

# 지리산 읽기 : 유토피아적 도피처에서 근대적 관광지로

- 허만수, 함태식의 삶을 중심으로 -

진중헌(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metaphor777@yahoo.co.kr)

지리산은 미국의 국립공원처럼 근대에 접어들어 새로이 발견된 경관이 아니다. 지리산은 오랜 역사시기 동안, 정치적·종교적·일상적 경관으로서 지식계층의 도피처 혹은 휴양지였던 동시에 일반 민중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경배와 저항의 장소였다. 반면에, 현대의 지리산은 최초의, 그리고 대표적인 한국의 국립공원으로써 해마다 수백만의 관광객이 휴가를 즐기는 시민적 휴양공간이다. 본 논문은, 이른바 “산사람(산사나이)”의 삶을 사회역사적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이 같은 지리산의 역사적 변화의 시점을 포착하고자 한다.

젊은 시절 지리산에 들어가 평생을 산 속에서 살았던 두 명의 산사람-허만수와 함태식은 전근대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관점을 실천 속에서 확립함으로써 자연을 심미적 관점과 보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근대적 자연관을 체화하였다. 산사람들은 급속하게 근대화하는 사회로부터 자연 속으로 도피한 것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근대성의 지표인 ‘사회-자연관계’의 측면에서 근대적 관점과 실천을 대중화한 최초의 근대인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삶과 생활태도는 최치원 이래로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던 지식계층의 전통적인 도피주의(escapism)를 재생산한다. 도피주의는 사실상, 그들의 특권적인 사회적 지위의 산물이며, 이는 자연감상이라는 배타적 관점을 발달시켰다. 그리하여, 산사람은 도교적 유토피아를 찾으려는 내면화된 이상과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자연감상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조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엘리트교육을 받았던 두 산사람은 평생에 걸친 지리산에서의 구조활동, 등산로 개척, 자연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서, “산(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두 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지극히 시민적 관념의 자연관을 실천하였다. 1990년대 이후 정부에 의한 국립공원의 관리가 체계화되면서, 지리산에서 산사람들의 역할은 현저히 축소되었다.

지리산의 전통적 의미는 ‘저항’과 ‘도피’의 장소로 요약된다. 기존 사회질서를 부정하거나 유토피아적 세계에 대한 추구하고 관련된 술한 역사적 내러티브들이 지리산에 의미의 지층을 쌓아왔다. 지리산의 지리적 위치와 자연 지리적 특성(에 대한 해석)은 이 같은 문화적 의미들을 생산하는데 중요하다. 도피와 저항의 장소로서의 지리산은 오랜 기간 동안 현실세계를 부정하는 상징적 장소로서(중심을 부정하는 주변으로서),--집단지정적 저항이든, 유토피아에 대한 개인적 추구가든--역할 해 왔다. 역사적으로 지리산은 중앙의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의 근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 민중의 민속적 민간신앙과 그에 대한 국가의 종교적 통제전략이 경합하던 장소였다.

궁극적으로, 산사람의 출현과 활동은 전근대적인 지리적 상상력의 종말- '신성한 장소'로서의 지리산의 퇴색-을 의미한다. 산사람의 내러티브는 외면적으로 도교적 도피주의를 재생산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지리산을 근대적 민족공간으로, 시민의 삶 속으로 결합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근대적인 유토피아에 대한 공간적 상상은 힘을 잃었다. 그리하여, 근대적 관광지로서, 그리고 시민의 휴양공간으로서의 지리산은 사람들의 유토피아에 대한 꿈과, 산의 신성함과 그것이 민중의 삶을 보호할 것이라는 종교적 믿음이 사라지는 지점에서 출현하였다.